

19 권위를 만드는 세 가지 요소

• 막스 베버는 사람이 어떤 조직이나 집단을 지배하고자 할 때, 그 지배의 정당성을 보증하는 요소는 '역사적 정당성', '카리스마', '합법성' 이 세 가지밖에 없다고 주장했다. 이러한 베버의 주장은 기본적으로 국가 운영을 문제로 삼고 있는데, 이를 조직 운영에 적용하면 상당히 성가신 문제가 발생한다.

• 문제는 역사적 정당성이나 카리스마를 갖춘 리더가 흔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조직에서 역사적 정당성을 날조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다. 하지만 날조된 역사의 정당성이 과연 중장기적으로 지배의 정당성을 보증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남는다. 그렇다면 합법성은? 규정과 벌칙에 얽매인 관료 기구가 현대 사회의 우수한 인재를 끌어들이고 동기를 불러일으킬 수는 없을 것이다.

• 결론은 하나 밖에 없다.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를 인위적으로 키워 내는 일에 도전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? 사람을 끌어모으는 자질을 타고난 인물을 얼마만큼 리버스 엔지니어링해서 더욱 폭넓은 범위에서 공유하고 실천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 될 것이다.